

# 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[seogil.chang@kotra.or.kr](mailto:seogil.chang@kotra.or.kr))

2023.04.07.(금) 제23-041호

◆ [Focus] 美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

◆ [What's News]

- (반도체) 美 2월 반도체 수입 통계 발표... 아시아 비중은 83%
- (반도체) 美, 중국의 美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조사 비판
- (IRA) 美 하원, 행정부의 느슨한 IRA 지침에 대해 비판 성명
- (규제) 美 정부, 對 러시아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MS社 과징금 부과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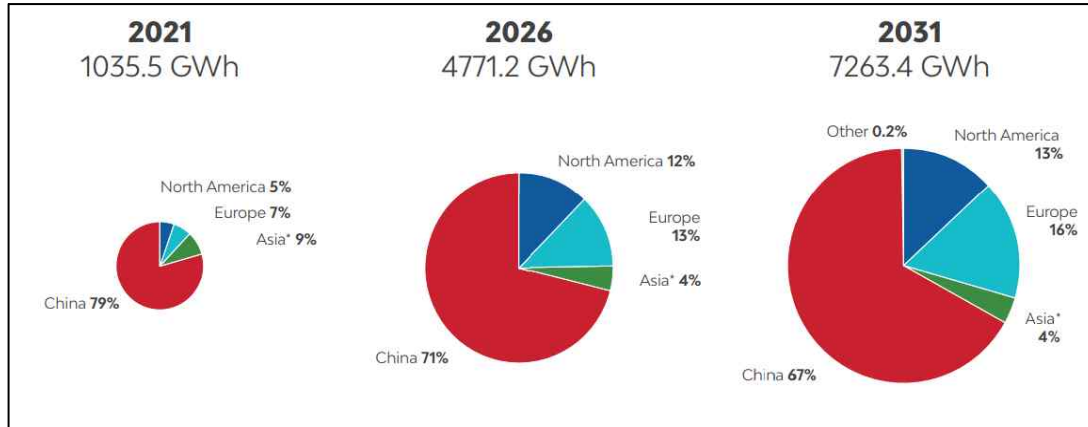
## FOCUS

### [핵심광물] 美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

#### □ 전기차(EV) 배터리 공급망 동향

- 글로벌 배터리 셀 생산 대부분을 韓·中·日 동아시아 3국이 담당
  -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조사('21년)에 따르면, 전 세계적으로 13개 배터리 제조사가 전체 EV 배터리 셀의 94% 생산
  - 이 중 중국에 7개 기업이 소재하고, 한국과 일본에 각각 3개씩 분포
- '21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EV 배터리 셀 생산 역량(capacity)의 79%를 점유, '31년까지 연간 4,800GWh로 확충, 최대 생산국 지위 유지 전망
  - '21년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역량은 1,035.5GWh이며 ⇒ '26년까지 4배 (4771.2GWh) ⇒ '31년까지 7배(7,263.4GWh) 이상 급증 전망
  - \* 전체 대비 중국 생산역량 비중 변화 : '21년 79% ⇒ '26년 71% ⇒ '31년 67%

< 지역별 배터리 생산 역량 전망 (2021~2031) >



[자료] The SAFE Center for Critical Minerals Strategy(3월)

- 미국에 소재한 약 20개 기업은 미국 내수판매 수요만을 위해 생산 중
  - 미국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셀의 70%, 팩의 87%가 미국 내 자급
  - 미국 내 배터리 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규명하는 공개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나,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(NREL)에서 북미 리튬-이온 배터리 공급망 및 유관 기업 현황을 보고한 바 있음.

\* [NREL 데이터베이스](#)에서 상세 기업과 시설 정보 파악 가능

< NAATBatt 리튬-이온 배터리 공급망 단위별 현황 (단위 : 개) >

공급망 단위	미국		캐나다		기타		종합	
	기업	시설	기업	시설	기업	시설	기업	시설
원재료 제조	7	10	10	16	3	4	20	30
배터리 등급 부품 제조	36	48	7	8	5	5	48	61
기타 부품 제조	29	32	1	1	1	1	31	34
전해질 및 셀 제조	50	58	8	8	0	1	57	67
모듈 및 팩 제조	98	115	10	10	2	7	110	132
폐처리 및 재활용	44	59	7	7	0	0	51	66
장비 제조	43	45	2	2	1	1	46	48
연구개발	62	70	6	6	3	3	71	79
유지 보수 서비스	60	62	4	0	0	4	64	66
모델링	19	19	2	2	0	1	21	22
유통	3	3	1	1	0	0	4	4
<b>합계</b>	<b>451</b>	<b>521</b>	<b>58</b>	<b>61</b>	<b>15</b>	<b>27</b>	<b>523</b>	<b>609</b>

[자료]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(NREL)

□ EV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

- 전기차 사양에 따라 다양한 리튬-이온 배터리 셀이 설계될 수 있으며, 음극재 화학 조합(cathode chemistry)에 따라 5가지 배터리 유형으로 분류

- (1) lithium cobalt oxide(LCO), (2) lithium manganese oxide(LMO), (3) lithium iron phosphate(LFP), (4)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(NCA), (5) 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(NMC)

- 따라서 리튬, 코발트, 망간, 니켈, 흑연이 5대 EV 핵심 광물로 분류됨.

\* 그 밖에 국내외 공급이 충분한 알루미늄, 철, 인산염 등은 비핵심 광물에 해당

○ 미국은 5대 EV 핵심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중

- 미국 지질조사국(USGS) 집계에 따르면, 미국에서 사용되는 망간, 흑연은 전량 수입하고, 리튬, 코발트, 니켈 등 수입의존도도 각각 25%, 76%, 48%로 상당히 높은 수준

< 미국의 EV 배터리 5대 핵심 광물 통계 >

(단위 : 메트릭 톤)

구분	리튬	코발트	망간	니켈	흑연
순수입 의존도	25% 이상	76%	100%	48%	100%
미국 생산	비공개	700	0	18,000	0
글로벌 생산	100,000	170,000	20,000,000	2,700,000	1,000,000
수출	1,900	4,800	1,000	25,000	8,400
수입	2,500	9,900	460,000	110,024	53,000
미국 매장량	750,000	69,000	0	340,000	비공개
글로벌 매장량	22,000,000	7,600,000	1,500,000,000	95,000,000	320,000,000

[자료] USGS,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2

○ 중국, EV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도 지배적 역할

- 강력한 국내 수요와 정부 정책에 힘입어,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제조, 부품 제조, 광물 채굴·처리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우월한 위치 점유
- 중국은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74%, 양극재 생산의 92%를 담당하고, EV 핵심 광물 처리의 60~100%를 차지하고 있음.

○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 노력 중요

- The SAFE Center for Critical Minerals Strategy에 따르면, 중국의 압도적인 배터리 공급망 지배력은 미국과 동맹국 간 전략적 공조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서 견제 가능하다고 전문가 분석

-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 지배력은 천혜의 지질학적 조건보다는 정부의 투자, 낮은 규제 환경, 값싼 노동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평가
- 따라서 미국, 주요 동맹국, FTA 체결국 등이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대중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< EV 배터리 생산 공급망 단계별 역할 비중 >

STAGE 1 MINING						STAGE 2 CHEMICAL PROCESSING					
	China	U.S.	FTA	Major Allies*	Other		China	U.S.	FTA	Major Allies*	Other
Nickel	3%	1%	9%	18%	69%	Nickel	72%	1%	7%	14%	5%
Cobalt	1%	<1%	7%	4%	88%	Cobalt	75%	-	6%	15%	4%
Graphite	65%	-	3%	8%	25%	Graphite	100%	-	-	-	-
Lithium	15%	1%	77%	7%	1%	Lithium	58%	2%	32%	6%	1%
Manganese	5%	-	18%	2%	76%	Manganese	93%	-	-	1%	6%
Rare Earths	70%	14%	6%	2%	8%	Rare Earths	94%	-	-	1%	5%

STAGE 3 BATTERY COMPONENT PRODUCTION						STAGE 4 BATTERY CELL PRODUCTION					
	China	U.S.	FTA	Major Allies*	Other		China	U.S.	FTA	Major Allies*	Other
Cathode Production	74%	<1%	16%	9%	-	Lithium-Ion Battery Cell Manufacturing	76%	6%	8%	8%	2%
Anode Production	92%	-	4%	4%	-						

[자료] U.S. Geological Survey and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.

## □ 현지 기관이 제안하는 EV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

- The SAFE Center for Critical Minerals Strategy는 보고서(3.27)에서 중국과 EV 경쟁 우위를 위해 미국 정부에 다음 정책 제안
  - (1) 핵심 광물 채굴·처리·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 강화
    - \* △인허가 법·제도 정비 △핵심 광물 리스트 재정립 △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△국제 환경·노동 기준 수립 △자원개발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주도
  - (2) 공급망 동맹 체제 구축을 위한 기존 파트너십 활용
    - \* △다국적 투자 메커니즘 개발 △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국제 태스크포스 구성 △우방국 외에 다양한 국가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성
  - (3) 신규 다자간 핵심 광물 조달 협정 창설
    - \* △공급망 투명성 강화 및 국제기준 집행을 위한 장치 마련 △공정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회원국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
■ 자료원 | 美 의회조사처(2022.8월), SAFE(3.27), 美 에너지부(2021.6월)

□ **(반도체) 美 2월 반도체 수입 통계 발표... 아시아 비중은 83%**

- (개요) 美 연방 통계청(Census)은 美 2월 반도체 수입액을 48억 6천만 달러(전년 比  $\Delta 17\%$ )로 집계(4.6)
    - 이 중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83%를 차지
  - (상세) 인도, 캄보디아, 베트남, 태국의 비중이 괄목하게 상승
    - 인도·캄보디아의 수입 증가율은 각 3,400%, 698%로 대폭 상승
    - 수입 비중이 인도·캄보디아보다 큰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75%, 62% 증가를 기록했으며, 베트남은 7개월 연속 10% 이상의 비중을 차지
    - 한국은 3억 6,550만 달러( $\Delta 43.3\%$ )를 기록하며 5위(7.5% 비중)를 차지
    -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 기업들의 전자제품 공급망 다변화\* 전략으로 인해 대미 반도체 수출국 목록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
- \* 애플사가 아이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움직임에 주목

<미국 '23년 2월 반도체 수입 동향>

(단위: 백만 USD)

구 분	'23년 2월	'22년 2월	증감률(%)	비중(%)
전 세계	4,856.7	4,139.8	17.3	100
말레이시아	972.9	1,319.6	-26.3	20.0
대만	732.0	701.7	4.3	15.1
베트남	562.5	321.7	74.9	11.6
태국	421.6	259.7	62.3	8.7
한국	365.5	255.0	43.3	7.5
중국	225.5	244.6	-7.8	4.6
일본	169.5	191.5	-11.5	3.5
캄보디아	166.3	20.8	697.9	3.4
인도	151.8	4.4	3400	3.1
필리핀	146.4	154.6	-5.3	3.0

[자료]: US Census 자료 블룸버그 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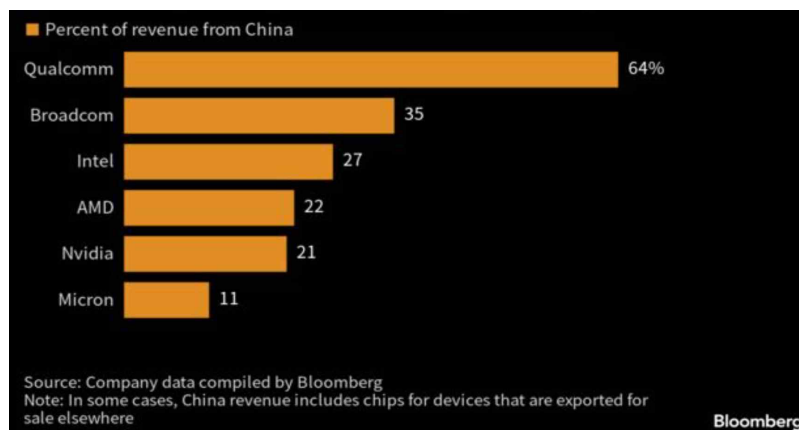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- 자료원 | 블룸버그(4.6) 등

## □ (반도체) 美, 중국의 美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조사 비판

- (개요) 바이든 행정부, 중국의 마이크론 대상 사이버안보 조사에 강한 비판
  -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 대상 사이버 보안 조사 (3.31)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, 바이든 행정부가 강한 비판과 동시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
- (상세) 미-중 반도체 분쟁 심화 속에 업계의 불안 고조 심화 전망
  - 중국의 이번 조사는 핵심 정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목적으로 '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' 및 '네트워크 보안법'에 근거, 중국 내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 대상으로 조사 실시
  -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외국 기업을 겨냥한 해외투자, 개방 거래 시스템 및 관련 시장의 신규 제재에 대해 우려 중이며,
  -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고조되는 반도체 갈등의 새로운 전선을 열게 된 것으로 평가
  -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(수출·투자 통제, 우방국 공조 등)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대응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
  - 한 편, 일부 언론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2개사\*의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(4.4)

\* ①인텔: 이스라엘 Tower Semiconductor, ②MaxLinear: 대만 Silicon Motion Technology

< (참고)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매출에서 중국 시장 비중 >



\* 주: 마이크론의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11%(33억 달러) 수준

[자료] 블룸버그통신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- 자료원 | 블룸버그(4.6), WSJ(4.4)

## □ (IRA) 美 하원, 행정부의 느슨한 IRA 지침에 대해 비판 성명

- (개요) 하원 세입위, IRA 친환경 투자액이 추산 대비 3배 증가한 것 지적
  - 하원 세입위원회는 WSJ의 보도를 인용, 친환경 보조금이 기존 의회예산국이 예측한 3,910억 달러의 3배에 달하는 1조 2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 지적
- (상세) 상한 없는 세액공제와 행정부의 느슨한 조건 해석에 납세자 부담 증가
  -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친환경 산업 기업들이 상한이 없는 세액공제 혜택을 서둘러 현금화하고 있고, 최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보조금 지원 요건 해석으로 실제 보조금 지출이 더욱 커질 전망
  - 의회예산국 기존 추정 예산보다 전기자동차(+3,790억 달러), 친환경 에너지 제조(+1,560억 달러), 신재생에너지 생산(+820억 달러) 등에서 추가 집행, 실제 보조금 지출은 총 1조 2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
  - 하원 세입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1) 부유층을 위한 복지비용은 모순 되게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, 2) IRA 법안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며, 3) 바이든 정부의 무역통상의제는 미국보다 외국에 유리하다고 비판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하원 세입위원회 보도자료(4.6), WSJ(3.24)

□ **[규제] 美 정부, 對 러시아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MS社 과징금 부과**

- (개요)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)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(OFAC)은 對 러시아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(MS)사를 합동 조사한 후, 결과 및 성명을 발표(4.6)
  - 美 정부는 러시아 이외 쿠바, 이란, 시리아 관련 제재 위반(총 1,339건)을 근거로 총 3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
- (상세) MS사는 과거 해외 법인의 수출통제 우회 사실을 자진 신고
  - \* 동 혐의는 러·우 사태 이전('16~'17) 발생한 것으로, 러·우 사태 이후 제재와 무관
  - 보도자료에 따르면 MS사 러시아 법인이 BIS의 수출통제 명단에 없는 기업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우회 승인한 것으로 설명
  - 사용권을 받아낸 최종 러시아 기업을 크림반도 분쟁 지역 내 교량 건설을 지원한 공기업과 해군 전함을 건조한 방산기업으로 지목
  - OFAC는 동 사건이 (1) 美 수출통제 및 제재법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했고, (2) 기술 회사의 해외 법인, 유통업체 등을 포함한 거래에서 발생할 위험과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으로 언급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■ 자료원	재무부 보도자료(4.6) 등

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McDonald's Cuts Pay Packages, Closes Offices Alongside Layoffs Across Chain</a> (맥도날드, 정리해고 외 사무실 폐쇄, 임금 감액 등 추진)</p> <p>맥도날드, 직원 정리해고와 더불어 현장 사무실 폐쇄, 임금 감액 등 회사 재정비 진행. 빅테크발 감원 바람이 골드만삭스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번지는 추세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Labor market adds 236,000 jobs in March, powering economy on</a> (3월, 236,000개 일자리 증가... 고용시장, 경제를 지탱)</p> <p>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, 고용시장의 호조가 경제를 지탱. 실업률은 3.5%로 최근 50년 최저 수준에 근접. 최근 경제 둔화에도 고용은 활성화.</p>
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Latest Jobs Data Hints at a Slowdown That President Biden Needs</a> (최근 고용지표, 바이든이 원하던 진정세를 암시)</p> <p>약 1년 전, 바이든은 고물가 해결을 위해 고용 둔화 필요성 역설. 3월 일자리 증가 둔화추세. 그러나 금융위기로 고용시장 급냉각시 침체로 접어들 수 있어...</p>
CNN	<p><a href="#">Moscow is skeptical China may shift its stance on Ukraine after Xi-Macron talks, Kremlin spokesperson says</a> (크렘린, “중-프 회담에도 중국은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것”)</p> <p>모스크바는 중-프 정상회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, 중국이 외부에 의해 입장을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 의견. 마크롱은 폰데라이엔과 함께 최근 3일간 중국을 방문.</p>
USA Today	<p><a href="#">‘Uncharted levels’: Gases fueling climate change still rising at an alarming rate, NOAA says</a> (“전인미답의 경지” 온실가스 배출, 아직도 급속도로 증가중)</p> <p>2022년, 온실가스 배출이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미 과학자들이 밝혀.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이 급증하는 가운데, 중국과 미국이 배출량 기준 1·2위를 기록</p>

\* 미국 동부시간 4월 7일 14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1	<a href="#">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</a>	2023.03월
US23-10	<a href="#">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3월
US23-09	<a href="#">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</a>	2023.03월
US23-08	<a href="#">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7	<a href="#">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6	<a href="#">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</a>	2023.03월
US23-05	<a href="#">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US23-04	<a href="#">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0 (2023.4월 중)		업로드 예정
코인시-9 (2023.3.15)		